

데스크 시국



김미은 편집부국장 겸 문화부장

"우리는 차마 논평을 발표하기조차 부끄럽다."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를 비롯 80개 문화 단체가 내놓은 논평의 첫머리다. 그동안 기자 생활하며 많은 성명서를 받았다. 주장을 드러내는 게 성명서이다 보니 강렬한 언어로 비판하고 분노하며 문제 제기를 한다. 한데 이번 성명서는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성명서보다 강렬해 앞으로도 한동안 읽기 어려울 듯하다. 문체부의 인사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어리둥절했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성명서에 적힌 저 '문장'의 의미를 알고도 남았다. 아마도 광주시와 국회의원까지 '한목소리'로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감대 전혀 없는 '꽃아 놓기 인사'

다시 북기하자면 지난달 1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이사장과 사장에 각각 최영준 전 MBC사장과 김신욱 전 광주시위원을 임명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파동은 지금도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단체는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인사를 주도한 이가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5년 개관 후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흥대 등 우여곡절을 거친 전당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 터져 더욱 뼈아프다. 문화기관 수장의 인사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은 언제

문화전당재단 사태, 논평하기도 부끄러운...

든지 지대하기 마련이다. 한데 이번 인사는 문화계는 물론이고 문화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비판의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 좀 색다르다. 사실 문화계 인사라 해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장르일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이번 사태에 문화계 바깥쪽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김 사장을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아서일 터이다. 지난 2010년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 나섰던 그는 '막대기만 꽃아도 된다'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무소속 후보 등에게 두 번이나 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공천과 관련해 큰 비판을 받았었다. 인사가 터진 후 모든 의견은 "문화와는 관계가 없고, 책임자가 아니며, 너무도 뜬금없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그렇다 보니 '인사 실행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많은 이들이 호명되는 중이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소환되고, 정치적 연줄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떠돈다. 더불어 문체부가 의견을 들었더니 '지역 인사'는 도대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이번 문체부 인사의 문제점은 단순히 재단의 경영진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솔직히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후 이어질 인사가 걱정스럽다. 선거 캠프에 들어가야 '한 자리'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누군가 임명될 때마다 능력과 비전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줄'을 타고 내려왔는지 캐느냐 정신이 없는 게 지역 현실이다. 조직의 수장이 이상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들과 일을 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절한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선거철만 되면 '제 밥 그릇' 찾으려고 창궐하는 인사들을 가려내는 선구안을 갖고, 당사자의 능력을 살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것이야말로 리더가 갖춰야할 조건 아닌가.

구설수에 오르며 입성한 이들은 늘 마무리도 개운치 않았다. 정치인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었던 광주문화예술회장은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사퇴했다. 최

근에는 광주관광재단 초대 사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표를 냈다. 관광이 도시를 살리는 대세라는 점을 감안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단체 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뒤에는 선거 출마설이 떠돈다. 공공기관은 누군가의 스펙을 쌓는 곳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마 음대로 나가는 곳인가. 임명자의 책임도 면키 어렵다.

경고음 울리는데 외면하는 민주당 이번 문화전당 인사 사태와 정치권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체 없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지난 1월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송영길 대표는 한때 피해 가족들로부터 면담을 거부당했다. 문화계에서는 "광주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 모르겠다" "민주당 지지 철회 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대선 때면 90%에 육박하던 지지율은 60%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2010년 시민단체 단일 후보들은 '민주당에 채찍을'이라는 구호를 외쳤었다. 경고음이 수없이 울리는 데도, 절박함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건 자만이거나 무능함의 극치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짜일 새 판을 기대해 본다.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 철 지난 인사 대신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참신한 인물의 등용을 고대한다. 눈에 뵈히 보이는 실패 사례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 제발 이번 사태가 '인사권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길 바란다.

'전일방울 245'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전당의 모습이 더없이 쓸쓸해 보이는 건 단지 내 기본 탓일까. /mekim@kwangju.co.kr

은폐칼럼



고성희 시인

눈 덮인 겨울 들판을 걷는다. 칼바람으로 부딪쳐 오는 냉기에 걸음을 뚝 수가 없다. 순례자처럼 드러누운 들판이 성 밖의 지친 사람 같다. 2월이라 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추위는 살을 에듯 날을 세운다. "매운 계절(季節)의 책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 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래라 눈감아 생각해 볼 뉘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이다."(이유사 '절정' 전문) 육사의 더 나아갈 수 없는 단애(斷崖)의 강박감이 민족의 비극과 맞물려 이 겨울 들판처럼 너무나 오տ하다. 2차 대전 모스크바에 남겨진 독일군의 고립도 그랬을 거다. 그들의 철모에 부딪는 러시아군의 총검 같은 바람. 누군가의 헛된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온 세상을 적대해야만 했던 그들의 고동이 생생해진다. 그래서일까. 강변에 버려진 스티로폼 조각과 빈 병, 찢긴 채 어지러이 날리는 포대 자루가 인간의 비운

봄을 향한 사유

육심처럼 적나라하다. 황갈색으로 텅 비어 있는 별판, 주위가 마지막 깃발처럼 팔려가는 들판을 걸으며 나의 남루를 돌아본다. 낮이 이성의 시간이라면 밤은 감성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밤이 선행'이라고 한 황현산 교수를 생각한다. 그분의 말처럼 겨울도 증계처럼 뒤를 돌아보게 하는 계절이다.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속도는 우리 삶의 터전을 냉혹한 한겨울 속으로 내동댕이쳤다. 그리하여 우리 삶은 바람 부는 겨울 갈대처럼 바짝 말랐다. 얇은 눈보라 가득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얇은 얼음 덮인 강변에 빼만 남은 갈대와 억새가 새차게 흔들린다. 뒤는 어떤가.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다. 어디에도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휘황한 번영이 아닌, 비탄과 고통의 미래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여겨듣지 않는다. 마치 미국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을 보는 것처럼. 속수무책이다. '돈 룩 업'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페이스북에 속아 마침내 지구의 종말을 맞는 광경은 끔찍하다. 영화 내내 위태한 풍자가 계속되지만 결국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 해성은 지구와 충돌하고 만다. 환경재단은 이제 지구 멸망까지 2시간 13분 남았다고 한다.(환경재단의 세계의 환경위기 시각은 현재 저녁 9시 47분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아래만 보고 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소셜 미디어 정보, 팩트와 거짓을 가릴 수 없는 혼탁. 패거리와 봉당 정치, 난무하는 혐오와 협박.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 알다시피 이 모든 건 우리의 책임이다. 인간은 지구 안 다른 생물처럼 '세입자'의 하나일 뿐이다. 안락한 현실을 좇아 지속가능한 미래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정확한 처신이 얼마나 많은가.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는 견잡할 수 없는 팬데믹 이후의 삶에 대한 경고이다.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법. 과거로부터 미래를 길어 올리는 것이니 이 겨울의 마지막 터널에서 우리 모두 봄을 위해 우리 삶의 방식을 사유하면 좋겠다. 긴 겨울 추위에 먼 얼어붙은 심장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고, 얼어붙은 뿌리에 푸른 생기를 불어넣을 희망을 위해. 자신의 삶을 간곡히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해 하심(下心) 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 하지 않을까. 우리 삶을 역지라도 뒤돌아보게 하는 겨울이다. 성경은 2000년 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청파교회 김기석 목사) 그 이유를 사유하며 세찬 바람에 떠는 강변을 바라본다. 얼어붙은 강물 귀퉁이에서 한 무리 오리 떼가 푸드덕 날아오른다. 흘러가는 강물과, 오리의 발에 묻어 सू투쳐 오른 물방울은 본디 같은 물결이었다. 이 겨울과 곧 다가올 봄도 맞닿아 있다. 흑한에도 소나무는 푸르고 동백은 이미 꽃망울을 머금어 우리에게 생각의 말미를 주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정직한 '룩 업'이 절실한 계절이다.

기고



정구태 조선대 법사회대학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78세 고령인 A는 전 재산을 아들 B에게 증여하면서 B로 하여금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부양해 달라고 하였고 B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B는 막상 A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자 태도를 갑자기 바꿔 A를 부양하기는커녕 A와의 연락을 아예 끊었다. 이에 A는 B에게 자신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였다.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 행위를 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수증자의 망은행위(忘恩行爲)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를 한 사람은 수증자가 도덕적으로 증여에 대해 감사하게 여길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비록 이런 기대가 좌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

불효자식에게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증자가 더 나아가 증여자에게 망은행위까지 한 때에는 계속 증여자로서 하여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림으로써 증여자가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답례를 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하는 호혜성(reciprocity)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민법 제558조가 제556조를 근거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민법 제558조에 의하면, 앞의 예에서 A가 아들 B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B와 체결한 증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A가 이미 B에게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법과 같이 망은행위를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이미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2020년 7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에도 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흔히 '불효자식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그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가 넘겨 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변심하여 부모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하거나 부모의 곤궁한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는 보다 근본적으로 도덕의 영역에 속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법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단지 국가 차원에서 효행을 장려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부모 부양의 의무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지만, 점점 더 도덕적으로 각박해지는 세대 속에서 법이 도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모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社說

'웃깃만 스쳐도' 공분 자아낸 올림픽 편파 판정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편파 판정으로 많은 선수들이 실격 처리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남자 대표팀 간판 황대현(강원도청)이 1조에서 1위를 했는데도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아 탈락했다. 2조 이준서(한국체대)도 2위를 차지했지만, 심판진은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며 페널티를 줬다. 이들 두 선수의 황당한 탈락으로 중국 리원룡과 우다징이 결승 진출권을 거머쥐었다. 개최국인 중국에 이로운 판정은 결승전에서도 이어졌다. 1위로 통과한 사울린 산도로 류(헝가리)가 비디오 판독 끝에 엘로카드를 받고 탈락하면서 금메달과 은메달이 중국 선수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틀 전 쇼트트랙 첫 경기였던 흥성 계주에서는 준결승에서 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심판이 눈감아 주면서 결승에 진출한 중국이 실력은커녕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우리 대표팀 만행 관공기는 대회 개막 직전 "중국 선수들과 웃깃만 스쳐도 불리한 판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한국 선수단은 황당한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다.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최용구 지원단에서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 이상은 오심이 아니고 고의적이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판정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노골적이다. 이처럼 대회 초반부터 반복되고 있는 중국의 교묘한 홈 텟스 판정은 지구촌 겨울잔치를 지켜보는 스포츠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공정 경쟁이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준비를 위해 수년간 피땀 흘려 온 우리 선수들에게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알맹이 없는 '재탕' 공약은 이제 제발 그만

여야 대선후보들이 광주 지역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약이 그동안 이미 나왔던 지역 현안 사업이거나 일부는 현실성이 없어 '공약을 위한 공약'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한 공약 중 일부는 상당수 엇비슷한데다 기왕의 현안 사업을 나열하다 보니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적극 지원, 인공지능 특화 대표 기업도시 육성, 클러스터 조성 및 인재 양성을 통한 모빌리티산업 지원,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벨리' 구축, 이동권 문제 해소를 위한 '그린수소트램(친환경 노면열차)' 구상 지원, 문화도시 육성 등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은 국가 시대데이터센터 구축, 광주~영암 간 초(超)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 혁신헌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이다. 이 가운데 두 후보가 제시한 광주공항 이전, 인공지능도시, 모빌리티산업 구축 공약은 구체적 내용이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엇비슷하며 민선 7기 주요 현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색다른 공약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이들 세 가지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시기 및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의 수소트램 및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공약과 윤 후보의 광주~영암 간 초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서남권 원자력 혁신헌 건립 공약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호남 민심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No Equal Drum) article with table comparing Choi Si-hyeon (리처드 3세) and Yoon Suk-yeol (리처드 3세) regarding their political stances and policies.